

# 취임 첫날 첫 현장 경영

###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취임식 생략 시 방역현장 방문

제40대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취임을 생략하고 A방역 현장부터 챙기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정재호 본부장은 최근 전북 지역에 고병원성 A형돼지 인플루엔자 급증함에 따라 4일 김제의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고 축산차량 소독과 소독 필증 발급 등 방역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김태곤 농협 김제시지부장, 김창수 전주김제연합축협 조합장과 함께 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정 본부장은 방역복 20박스와 격려품을 전달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일선 영업점부터 시작해 중앙회 기획, 은행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사업 부서를 두루 거친 후 농협조직 전체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총무부장을 최근까지 역임하며 어려운 국내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범농협 시너지 창출 확대와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앞으로 전북농협은 정 본부장을



최근 전북지역에 고병원성 A형돼지 인플루엔자 급증함에 따라 4일 김제의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한 제40대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이 방역복 20박스와 격려품을 전달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농협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며 계통 간 상생협력 강화, 언택트 환경 대응 사업체계 재정립, 내외의 농정활동 강화,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 유연하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 조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전북농협 대표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북농협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쟁력 있는 농업과 잘사는 농업인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북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원주 출신인 정본부장은 전라교과와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인사 이래 무주군 지부장, 농협은행 인사부장, 농협중앙회 인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윤상 기자

## 농업금융 활성화 역량 결집... 새해 첫 공식일정 돌입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축년 새해 첫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4일, 장기요 본부장을 비롯한 이희문 농협 임실군지부장, 영업본부 간부직원 등 10여 명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송고한 넋을 기렸다.

이날 전북본부는 임실호국원 참배와 함께 2021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신 지원 확대 ▲농업금융 활성화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역량을 결집할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4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축년 새해 첫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방침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다"며 "호국영령의 송고한 정신

을 이어받아 도민과 농업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경진원, 도내 출연기관 최초 '대통령 표창'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2020년도 지역혁신공공 정부포상의 지역공동체활성화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진원의 대통령 표창 수상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의 성과이다. 또한 지역혁신공공 공동체활성화 부문에서 전국유일의 기관표창이다.

경진원은 지난 2012년 전라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정책방향에 따른 공동체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북도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지역공동체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판로확대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0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유공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3월까지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에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분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농진청, 식량작물 우수종자 정기분양 이달 중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해 생산한 벼, 쌀, 콩 등 식량작물 우수종자 정기분양을 1월 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1차 분양은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에 한해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받아 1월말 확정 후 무상 분양한다. 2차 분양은 1차 분양 후 남은 수량에 한해 일반 농가의 신청을 받아 2월 이후 무상 분양한다.

종자분양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rcs.go.kr) 신품종 종자분양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받

아 이뤄진다. 특히 지역의 농업기술센터·RPC·재배단지가 합심해 외래품종 대체나 지역 특산 품종화 등 지역 내 자체확산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 공급해 품종 전환 및 신품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4일 열린 비대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은행 핵심사업 고도화, 디지털 역량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영업기반 확대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조직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 기틀 마련을 강조했다.

## "100년 은행 도약 추진전략 제시"

### 전북은행, 2021년도 시무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에 따라 2021년도 시무식을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새해업무 시작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은행 핵심사업 고도화, 디지털 역량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영업기반 확대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조직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 기틀 마련을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임 은행장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의 선도자로서 우리사회에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전하였고, 차별화된 소매금융 전략을 통해 괄목할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루어낸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의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용택 은행장은 "코로나19의 도전을 이겨내고 우리가 꿈꾸는 '금융을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한국판 뉴딜' 완성 위한 힘찬 대도약

### LX, 온라인 시무식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교육원, 연구원과 함께 시무식 갖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LX는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로 '2021 시무식'을 개최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정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힘찬 대도약을 기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구축과 확산, 공간정보 시장 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라는 '두 마리 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출발도 좋은 편"이라며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확산을 위한 여건이 확보됐고, 지하공간 구축·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제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 통해 국토정보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안전 국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LX로 거듭나야 한다"며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계획한 사업들을 앞장서 수행물로 거두는 기념비적인 한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LX공간정보연구원 손준영 원장과 이화영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날 임용택을 받았다. 임기는 2년이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4조1000억원 신속 지급

### 전북중기청, 11일부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로 완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제대, 교육부, 문화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신청방

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 하는 등 비대면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필요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대해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자금 추진계획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용자 1조 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며, 0.9%인 보증수수료를 첫째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 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천억 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 명에 비하면 '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 원을 지원해 나간다. /김윤상 기자

### 오영석 신임 농협 무주군지부장 취임



농협 무주군지부장에 오영석(52) 전북농협 경영지원단장이 지난 1일 부임했다. 오영석 신임 지부장은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의 주권 신장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주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인 실익사업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지역대표 은행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 지부장은 이어 "무주군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석 지부장은 전북 사대부와 전북대의 전북대 대학원 등을 졸업하였으며, 무주군지부 과장, 무주군청 출장소장, 무주군 지부장으로 무주에서만 3차례 근무하는 등 무주사람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이충호 신임 남원 농어촌공공지사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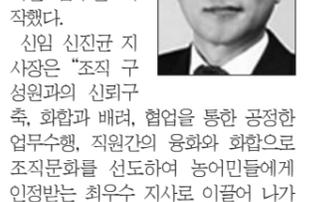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신임 남원지사장(남원 14대)에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장을 역임한 이충호씨를 임명했다.

이충호 신임 남원지사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공사에 입사해 군산지사 농지은행부장장과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한 취임사에서 이충호 신임 지사장은 "전 직원이 창의적인 생각과 역동적인 모습으로 남원지역사회 및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직 내에서는 상생과 소통을 통해 활력 있고 즐거운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신진군 신임 부안 농어촌공공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에 신진군 지사장(56)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신진군 지사장은 "조직 구성원과의 신뢰구축, 화합과 배려, 협업을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 직원간의 융화와 화합으로 조직문화를 선도하여 농어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사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80년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첫발을 디딘 신진군 지사장은 분사 정보화추진처장과 정읍·동진지사장등을 역임한 실력파로 분사 재직중에는 공사의 손꼽히는 IT전문가로서 IT 기반의 경영전략에 탁월하여 농어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3차례의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신 지사장은 정읍과 동진지사장으로서 유관기관과의 협업등을 통해 재해, 재난(수해, 태풍등)에 적극 대처하여 안전 영농을 이루고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한바 지역민과 직원선·후배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신 지사장은 부안군출신으로서 앞으로 "신규정책사업발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써 지역사회 가족공동체 형성에 앞장 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